올 가을 '불교문화' 아름다움에 빠져보자

조계종 문화부, 2024 불교문화대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10월 17~24일, 8일간 개최
동아리 한마당 처음 선보여
전 세대 동참…문화포교 확대
'문경' 상영 · 연희극 등 다채
"삶에 지친 이들 활력 얻길"

단풍이 물드는 가을날, 불자 문화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그 깊이를 함께 향유하는 '불교문화대전'이 펼쳐진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는 10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교문화단체 및 문화예술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을 문화축제 '2024년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을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끈다. 조계사 향무용단, 광동중 청소년 댄스팀, 봉은사 풍물패 등 비전문 불교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실시, 우수 동아리에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찰 내 신행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교문화예술인 발굴·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등 전 세대 불교동아리 10팀이 출연해 악기 연주, 무용, 도내 등 그간 갈고 닦은 끼와 열정을 발산한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불교박람회나 청소년 춤 경연대회 등이 젊은 세대에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은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며 "문화를 매개로 열심히 활동하는 동아리를 위해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문화포교의 장을 확대하고 동기부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불교 문화예술인들이 불교를 소재로 한 고품격 무대를 선사하는 '불교문화단체 공연 갈라쇼'도 올해 처음 마련됐다. 여여가야금병창단, 국악 중창단 LMB싱어즈, 평인무용단, 이송미 불교싱어송라이터 등이 참석한다. 이 외에도 불교영화 상영회, 불교 사진전, 불교 연희극,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2024 불교문화대전 포스터.

2024년 불교문화대전은 10월 17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에서 개막식과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기획프로그램 진행된다. 18일 오후 7시에는 불교영화 '문경'을 무료 상영한다. 19일 오후 3시에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이, 20일 오후 3시에는 불교문화예술 공연 갈라쇼가, 21일 오후 3시에는 제24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이, 22일 오후 7시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연희극 '길 위에서 길을 찾다'가, 23일 오후 1시에는 제11회 신작 찬불가 공모전 시상식이 이어진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특별전시, 나무갤러리에서 불교사진전 '불교문화 속 용(龍) : 미래를 꿈꾸다'가 진행된다.

24일 오후 3시 공연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에는 한 해 동안 불교문화 창작과 홍보에 애쓴 예술인과 언론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제32회 불교언론문화상,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제11회 신작찬불가 및 제7회 불교음악상 시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국 13개 사찰 및 단체는 불교문화대전 기간에 맞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혜공 스님은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새롭게 발전시켜온 불교문화는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여유와 활력을 제공하고, 문화적 영감과 감성을 채워줄 것"이라며 "즐겁고 재미있는 불교를 보여주기 위해 많이 준비했다. 시민과 불자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아승기'

입상작 60점 선정…12월 18일부터 전시



천태종이 불교미술의 저변 확대와 신인 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주최한 제9회 천태예술공모대전에서 최윤수 작가의 석조각 작품 '아승기'〈사진〉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은 "올해 총 74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9월 28일 심사를 통해 60점의 입상작이 선정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대상작 '아승기'에 대해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석공예의 기초가 탄탄한 작품이며 법화경 사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인 국가유산청장상은 민화 부문에서 '화성능행도'를 출품한 장숙표 작가가 차지했으며, 전통불화 부문 우수상은 '약사십이신장도'를 출품한 최현희 작가가, 현대불화 부문 우수상은 '삼신불(법의 작용)'을 출품한 김동수 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공예 부문 우수상은 정수고 작가의 '나전대모국당초문연주합', 민화 부문 우수상은 박소옥 작가의 '해학반도도'가 선정됐다.

한편, 입상작 전시회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갤러리에서 열리며 전시 기간 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전통 기법과 현대 감각 어우러진 '단청'

무우수갤러리, 10월 16~22일
단청장 전승교육사 최문정 작가
'From Korea With Love–장생'


장생 Ⅰ, 162×112cm, 면본채색, 혼합매체, 2024.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에서 새롭게 탄생한 단청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무우수갤러리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관내 3층 화이트관에서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전승교육사 최문정 작가의 전시 'From Korea With Love-장생'을 개최한다. 전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후원한다.

단청은 궁궐이나 사찰 등 목조건물에 여러 빛깔로 무늬를 그려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단청은 정형화된 이미지로 비치기 쉽다. 하지만, 단청은 단순한 건축 장식을 넘어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담은 예술이기도 하다.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전승교육사 최문정 작가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단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최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단청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추상적인 표현과 강렬한 색채,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해 단청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단청을 과거에 머무르게 두지 않는다. 다양한 일상 속 생활용품에도 단청 문양을 활용하는 등 단청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녹여내며 단청 대중화에 기여했다.

최 작가는 "단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담은 예술"이라며 "단청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송광사 동향·인물 조명

10월 18일, 법련사 대웅보전서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보경 스님)이 10월 18일 서울 법련사 3층 대웅보전에서 '근대시기 송광사의 동향과 인물'을 주제로 제31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조계사 송광사 사고 편찬의 의미와 가치(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제강점기 송광사 불교청년회 설립과 활동(김경집 동국대) △우담홍기의 삼종선 비판 논리-'선문증정록'을 중심으로(마해륜 고려대) △금명보정의 수행교화 활동과 불교사 인식(이계표 전남대) △현곡 김잉석의 보조 연구에 대한 성찰(한경옥 이화여대)가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국제명상상담학회 창립…"고통 함께 치유"

10월 19일 능인대 대강당
창립 기념 제1회 학술대회

억눌린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 폭력,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음 치유 방법으로 '명상'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명상학자들이 국제명상상담학회를 창립하고, 전 세계인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운다.

국제명상상담학회(회장 김영미, 능인대 교수)는 10월 19일 능인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온 세상이 행복 명상으로 물든다'를 주제로 제1회 국제명상상담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동방대 석좌교수 인경스님의 '영상관법과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마커스 치텀(Marcus Cheetham) 교수(취리휘 대학병원)가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여라-어려운 선택을 위한 환자 의사결정 도구(mind the patient-patient decision aids for difficult choices)'를, 백도수 능인대 교수가 '자살 예방을 위한 불교 행위 명상'을,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자살, 욕망이 지닌 또 다른 얼굴'을, 김호상 메니놀병원 부장은 '뇌 구조와 역할'을 주제발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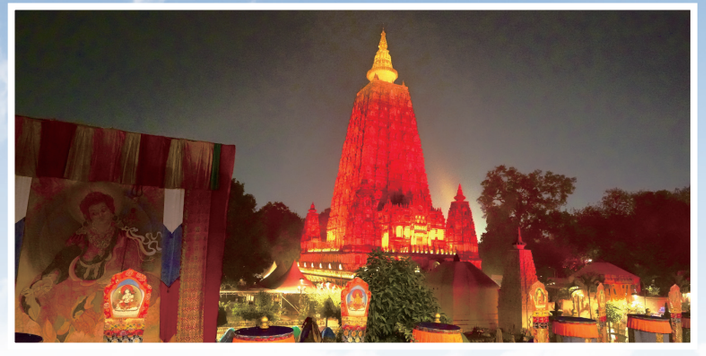
토론은 김태수 대진대 연구교수, 임세라 능인대 교수, 김한상 능인대 교수, 윤희조 서불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김영미 국제명상상담학회장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가 급변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평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마음의 치유와 내적 평온이 필요한 지금 국제명상상담학회의 창립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명상은 오랜 시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는 제일 강력하고 좋은 방법으로 자리잡았다"며 "국제명상상담학회는 국내외 사람들을 융합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아우르는 학회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 형태의 정신적 돌봄과 마음 치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우리 학회는 각국 명상과 상담 분야 전문가와 교류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전 세계에 명상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사람들의 내면적 고통을 함께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 동참금 : 299만원
기타 인도성지 출발일정입니다.
▶ 10월 20일 출발 ~ 10월 2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11월 17일 출발 ~ 11월 26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 12월 05일 출발 ~ 12월 1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중남미 6개국 여행 20일 2025년 3월 5일 ~ 3월 24일
▶ 인천 – 아틀란타 – 리마(페루) – 쿠스코 – 마추픽추 – 쿠스코 – 라파즈(볼리비아) – 우유니 – 라파즈 – 리마 – 리오(브라질) – 이과수(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 보고타(경유) – 멕시코 시티 – 칸쿤(멕시코) – LA(경유) – 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